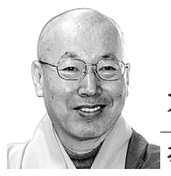
우리는 인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사바세계를 감인토(堪忍土)라고 한다는 말은 불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하면 견디고 참고 사는 세상이라는 말이다.

수행에 있어서도 인욕심이 없으면 안 된다.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극기정신이다. 본문에서 세 번째 수행문인 인문(忍門)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남이 주는 괴로움을 잘 참아서 보복할 마음을 품지 않으며, 또한 마땅히 이(利), 쇠(衰), 훼(毁), 예(譽), 칭(稱), 기(譏), 고(苦), 락(樂) 등의 법에도 참아야 한다."

중생의 세계는 자신의 밖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참아야 하는 인욕의 힘을 먼저 요구한다. 〈금강경〉에 과거 500생을 인욕선인으로 수행하다 가리왕으로부터 사지를 잘린 수난을 당하고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있듯이 인욕할 수 있는 정신이 있으면 남에게 관대해질 수가 있고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평화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는 격언처럼 역경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성공을 기약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 용서하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복수하려는 생각을 품지 말며, 또 자신을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헐뜯거나 칭찬하거나 괴로움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더라도 이러한 모든 일에 마음이 동요됨이 없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수행에서도 인욕심 필요해
十忍 이루면 일체 걸림없어

이른바 여덟 가지 바람(八風)이라고 하는 것, 이익이 생길 때(利), 손해가 날 때(衰), 명예를 훼손할 때(毁), 명예롭게 할 때(譽), 칭찬할 때(稱), 비방할 때(譏), 괴롭게 할 때(苦), 즐겁게 할 때(樂)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인문을 닦는 기본자세라 하였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사람의 마음이 이러한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도록 일러준 것이다.

본래 인(忍)은 범어 'ksanti'를 번역한 것으로 찬제(羼提)라 음사하는데 '참는다' 뜻과 '용서한다'는 뜻이 함께 들어 있는 말이다. 또 화엄학에서는 인가(認可)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화엄경〉 '십인품'에서는 인을 열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보현행품'에서는 "화를 한 번 내면 백만 가지 장애가 생긴다"고 하였다.

인욕바라밀에 대해서 〈해심밀경〉이나 〈유가사지론〉, 〈섭대승론〉 등에는 삼인설(三忍說)이 설해져 있다.

①내원해인(耐怨害忍) :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해도 이를 잘 참아내고 편안히 머물러 보복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

②안수고인(安受苦忍) : 질병, 수해, 화재, 칼 몽둥이 등에 의해 온갖 피해를 입어도 이를 잘 참아내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③제찰법인(諦察法忍) : 모든 존재의 자체 성품이 텅 비어 허깨비 같아 본래 생멸이 없음을 관찰함으로써 진실한 경계를 믿고 깨달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편안히 머무는 것.

이상의 삼인(三忍)의 설명에서 마음에 불안이 없고 편안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을 인(忍)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인(忍)을 지혜와 같은 뜻으로 보기도 한다.

깨달음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인(忍)을 무생법인(無生法忍)이라 한다. 모든 존재 자체가 공하여 불생불멸하는 진여의 이치를 깨달아 그 진리에 편안히 머물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상태를 지혜로운 것으로 본다.

80권본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열 가지 삼매를 얻고 열 가지 신통을 얻은 다음의 경지를 십인(十忍)으로 설명하면서 이 인을 얻으면 일체 보살의 걸림 없는 지위에 도달하여, 모든 불법에 대해 걸림이 없고 다함이 없다 하였다.

자비심이 없다면 보시도 청정치 않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㉗ 보살의 마음

受施者大得財物。餘人見之歡喜讚歎。菩薩爾時菩提之果如在掌中。悲心淨則施淨。若無悲心施不 淨。菩薩作是思惟。善調順意者敬悲心勝能使施淨。菩薩見貧窮者悲心極重。眾生極貧得菩薩施便成巨富。譬如有人得如意珠所欲皆得。諸貧窮者得ᵹ菩薩一切貧苦悉皆除滅。菩薩先行財施。次捨所親。又捨手足。復捨身命。如是漸漸次第而捨。菩薩往乞者所與其財寶。喚其乞者與其諸親。若乞者自來現求索相與其手足。若發言求索便捨身命。若不來者自往施之。有來求者 捨身命。況復財物而不施與。(수시자대득재물。여인견지환희찬탄。보살이시보리지과여재장중。비심정즉시정。약무비심시불청정。보살작시사유。선조순의자경비심승능사시정。보살견빈궁자비심극중。중생극빈득보살시변성거부。비여유인득여의주소욕개득。제빈궁자득치보살일체빈고실개제멸。보살선행재시。차사소친。우사수족。부사신명。여시점점차제이사。보살왕걸자소여기재보。환기걸자여기제친。약걸자자래현구색상여기수족。약발언구색변사신명。약불래자자왕시지。유래구자상사신명。황부재물이불시여。)

번역

시주를 받은 이가 큰 재물을 얻으면, 나머지 사람이 보고 기뻐하며, 찬탄합니다. 보살은 이때 보리(菩提)의 열매를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자비심이 깨끗하면, 베푸는 것이 깨끗합니다. 만약 자비심이 없다면 보시가 청정할 수 없습니다. 보살은 이런 생각을 짓되, 착하고 조순한 마음과, 공경과 자비심으로 수승하여 능히 보시가 깨끗하도록 합니다. 보살은 가난하고 궁핍한 이를 보면 자비심으로 지극히 중히 여깁니다.

중생이 지극히 가난하다가 보살의 보시를 얻어 문득 큰 부자가 되는 것은, 비유하자면 사람이 여의주를 얻고 바라는 바를 다 얻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가난하고 빈궁한 이가 보살을 만나게 되면, 일체의 가난과 고통이 모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보살은 먼저 재물을 보시하고, 다음으로 아끼는 것을 희사하되 또한 손발을 희사하며, 다시 몸과 목숨을 희사합니다.

이와 같이 점점 차례대로 희사합니다. 보살은 구걸하는 이에게로 가서 재물을 주거니와 구걸하는 이와 그와 친한 이를 부릅니다. 만약 구걸하는 이가 와서 현재 구하고 찾는 것이 형상이라면, 그 손과 발을 줍니다.

만약 발언하여 구하고 찾는다면 문득, 몸과 목숨을 줍니다. 만약 찾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스스로 찾아가 베풉니다.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오히려 몸과 목숨을 희사하거니와 하물며 다시, 재물인들 베풀지 않겠는지요.

해설

보살은 곧 여의주다. 여의주는 '일체를 비추어 보는 신비한 구슬'이다. 〈불설대의경〉에 나오는 '신비한 구슬'이어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진귀한 보배를 쏟아낸다. '원만성취'의 구슬이며, 보물과 음식, 옷과 약 등을 얻게 하며, 악을 제거하고 탁수를 맑게 하며, 허물을 없앤다. 주는 것이 곧 깨달음이니 어찌 아니 그렇겠는가.

보살은 찾아와 구하는 이에게 재물과, 손발과, 심지어 몸과 목숨까지 베푼다. 가령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가서 재물과, 손발과, 몸과 목숨을 베푼다.

보살의 베품은 보살의 기쁨이자 자신이라고 여기는 그 아상(我相)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상을 여읜 보살이 곧 해탈한 이다.

화엄경 〈세주묘엄품〉 5권에 법계보음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을 찬탄한 게송을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적에 중생 위해 자비심 내어 보시바라밀다를 닦았으므로 그 몸 가장 수승하고 미묘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셨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내 죽거든

내 죽거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리지 말길,
관이니 상여니 만들지 말길,
그저 입은 옷 그대로 둘둘 말아서
타오르는 불더미 속에 던져 버릴 것,
한줌 재도 챙기지 말고 버려 버릴 것.

내 죽거든
49재다 100일재다 제발 없기를,
쓰 잘 데 없는 일로 힘겨워 말길,
제삿날이니 생일이니 잊어버릴 것,
죽은자를 위한 그무엇도 챙기지말 것.
죽은자의 사진한장도 걸어두지말 것.

내 죽어
따스한 봄바람으로 돌아오리니,
피고 지는 들꽃 무리 속에 돌아오리니,
아침에는 햇살처럼, 저녁에는 달빛처럼,
더러는 눈송이 되어 더러는 빗방울 되어.

티베트의 당시옹이란 곳의 게스트하우스 에서 고산증으로 쓰러져 죽음을 맞은 듯 흐르고 혀와 입술은 수없이 갈라져 맹물을 마시면서도 고통스러웠다. 목젖이 퉁퉁 부어 침까지 삼킬 수 없을 만큼 온 몸이 만신창이로 부서지고 있었다.

당시 나의 옷차림은 넝마차림의 거지꼴이었고 사타구니 부분은 오래전부터 진물 터진 상처투성이의 병명을 모르는 만성 피부염을 앓고 있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용기와 오기가 동시에 일어났다.

델리 대학병원을 찾아가 여권과 향봉의 웃는 얼굴이 천연색으로 박혀있는 '사람귀하'라는 책을 들이밀며 'Help me'를 거듭거듭 외쳐댔다. 아마도 병원 바닥에 쓰러진 이후 병원 측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 같다. 그것도 박사과정의 한국 유학생의 눈에 띄어 입원 절차를 마치게 된다.

소위 출가(出家)한 구도자로서 깨달음을 향해 스스로 택한 고행자의 길이었지만 더러는 가슴이 비어 허전하기도 하고 더러는 쓸쓸하고 외로움에 타는 갈증을 느끼며 향수병에 젖어 우는

간절히 수행하면 누구나 자유 얻는다
적당히 수행하면 적당히 이루게 된다

예감하고 사력을 다해 쓴 글이다.

게스트 하우스의 관리인에게 고산증세를 알리며 도와 달라 하였으나 시골이라 고산증 고쳐줄 병원 없고 오지라서 택시도 없다며 가끔씩 죽는 여행객이 있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준다. 온 몸이 마비되어 굳는 고통 속에서 부처님을 부르고 어머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안간힘을 다해 유언장으로 쓴 글이 '내 죽거든'이다.

티베트에서는 경찰이 아닌 무장군인이 외국인 숙소를 가끔씩 검문 차 다녀간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나를 발견하고 그들의 군용차에 실려 군인병원에서 그들의 응급조치로 되살아나게 됐다.

그들이 나의 소지품을 돌려 줄때 겨워낸 이물질이 말라 붙어있는, 볼펜으로 쓴 '내 죽거든'이 삐뚤빼뚤 눈물방울이 되어 원고지에 박혀있었다.

인도에 머물 때는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死境)을 헤맨 적이 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불덩어리인데도 이빨이 달달달 떨리며 뼛속에 까지 얼음덩이가 박힌 듯 몹시도 추웠다. 온 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가벼운 바람이 스쳐도 살결이 아팠다. 땀은 흥건히 비 방랑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 일수록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엷어져가는 간절심을 챙기며 마음을 모아 갔다. 하나도 간절심이요, 둘도 간절심이요, 셋도 간절심이었다.

커피를 마시고도 커피 맛을 말이나 글로 표현 할 수 없고 김치를 먹고도 김치 맛을 글이나 말로 표현 할 수 없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을 얼마만큼이나 말씀으로 표현하실 수 있었겠는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수 십년이 지나 제자들의 합송으로 이루어진 경전에는 얼마만큼의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질 수 있었겠는가?

하여, 나는 스스로 수행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과 의미를 '참앎(知)'과 '참봄(見)'으로 완성하고 싶었다. 간절하게, 참으로 간절하게 수행하던 나는 끝내 종교적인 아름다운 체험으로 온갖 의혹에서 벗어나는 자유인이 된다.

적당히 수행하면 적당히 이룬다. 참으로 간절하게 간절심으로 시공(時空)을 벗어 버리면 누구나 자유인, 해탈자가 되는 것이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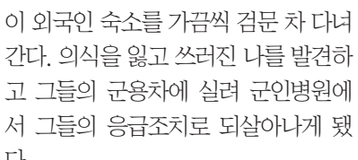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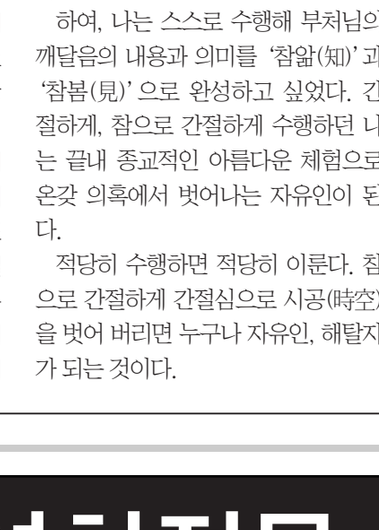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